

0202010109_13v1 복리후생지원

0202010109_13v1.3 후생시설 운영하기

위탁 관리의 개념

기업의 현실상 복리후생 시설을 모두 갖추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복리후생 시설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보다는 위탁 또는 수당 등의 지급을 통해 직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 특히 기업의 규모와 소재지의 지역적 기반, 업종 특성과 인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복리후생 시설의 자체 확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문 기술이 풍부한 업체에 맡겨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다양한 직원들의 요구에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선호되고 있다. 복리후생 시설의 위탁은 기업이 직접 해당 복리후생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 업체와 해당 영역의 복리후생 시설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전문 업체로 하여금 직원들의 복리후생 수혜 내역을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복리후생 시설 위탁의 장단점>

구분	내용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적인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 외부 전문 업체의 경험 활용으로 전문성·기술성 제고 - 양질의 복리후생 제공으로 직원 만족도 향상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운영 업체 간 협조 체제 미흡 - 적자 운영 시 수수료(사용료) 인상 추진 요구 - 장기적 위탁 시 사명감 부족, 프로그램 개발 저조 - 기계 설비의 무리한 가동으로 사용 연한 단축 등 시설물 관리 부실화·노후화 촉진 - 노동조합 활동 등 서비스 중단 시 직원 불편 초래